

찬양해요 찬송가 204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누가복음 1:18-20, 34-38절

## 사가랴의 대답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9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 마리아의 대답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 말씀 이해하기

누가복음 1장에는 특별하고 기적적인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사건 모두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하여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수님의 탄생

에 대하여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에 대한 사가랴와 마리아의 대답과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두 사건은 특별하고 기적적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처녀라는 점에서 기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깨달음 앞에 사가랴처럼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 좀 더 생각해보기

①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며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18절)?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보세요.

내가   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②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사가랴에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20절)?

③ 한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35절)?

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 너를 덮으시리니

④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38절)?

⑤ 천사에게 아기의 잉태 소식을 들은 사가랴와 마리아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누구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할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